

투데이 칼럼

지금은 글로벌 '안전테마' 관광시대

언젠가부터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가 이전 생소하지 않다.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주를 이루다가 2019년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바로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휴가 차 해외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여행의 한 코스로 구성하고 태풍, 지진, 화재, 교통안전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갔다. 체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입소문이 나고, 관광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해외 손님의 발길을 안전체험관으로 이끌고 있다. 대상도 가족, 연인, 태권도협회, 무술협회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되므로 반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안전체험을 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는 그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다. 별다른 진리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소재실

전북 119안전체험관장

출발했지만, 보는 관공이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적인 관광 상품으로 함께 체험하고 느끼니 부모의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중국 태권도 코치는 "올 여름에 생존수영을 처음으로 접해봤다"며, "이는 수영능력에 상관없이 옷과 신발 등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의 부력과 호흡법을 통해 물위에 장시간 떠 있는 기술이다.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서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생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게 체험에 대해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를 본 부모의 반응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며 치료해 주는 부모, 조심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혼내는 부모, 관의 도로 관리 부실을 비난하는 부모 등 그 모습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걸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는 경우는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언제까지 지상, 육상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심리학자 교수로 재직 중이던 헬렌 조제는 위험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위험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의 안전은 조제 교수의 지적처럼

‘타자의 논리’로는 확보할 수가 없다. 전통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행동은 개인적인 조심이었고 사고의 원인이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위험요인도 찾기 쉬웠다. 그래서 불조심, 차조심, 낙상조심처럼 주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에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찾아야 한다. 언어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타국에서 느끼는 안전체험은 무엇보다 값진 여행의 한 부분이고 내실 있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체험 현장에서 흘리는 땀만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재난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을지 모르지만 유비무환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만이 재난에 대처하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의 다짐이며 모든 체험객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전국 제일의 안전명소로 발돋움하여 안전체험 품질관리를 통한 체험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글로벌 안전관광 시대에 해야 할 과제라고 여긴다.

독자재언

갓길 정차, 대형사고를 부른다

교통사고 예방은 늘 중요하지만 갓길 교통사고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를 불러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는 차량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를 뒤에서 고속으로 들이 받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길사고는 졸음운전 등에 의한 돌발 형태가 많아, 주?정차 차량이 각별히 주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갓길을 일반도로처럼 운행하거나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 갓길을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안전 불감증 문제가 크다.

차량 고장 등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도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 운행이 가능할

경우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뒤차에 상황을 알리려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갓길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움직여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삼각대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야간에는 후방 200m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빠르게 달려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꽃 신호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운전자들은 갓길에는 고장 또는 긴급차량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주의하는 안전운행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백옥셀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소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춤추며 축하하는 사우디 국립기념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립기념일인 23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 거리에서 국기를 든 남성이 춤을 추며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사우디 국립기념일은 이븐 사우드가 1932년 9월 23일에 국가를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알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즉위 후 애국심을 다지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곳곳에 국기를 게양하며 이날을 기념한다.

사설

일자리 13만개 창출 약속

전북도가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번에 일자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 도민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게 생각난다.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 전북의 1년 예산이 7조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투입되는 액수가 여간 큰 게 아니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그리고 일자리 13만 개도 그렇다. 전북도가 2022년까지라고 한정하긴 했지만 전북도의 그 일자리 창출 약속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그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전북도는 2조원 투입과 13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내 젊은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열원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관청은 일자리 취직을 바라고 있다. 전북도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려내려면 관청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 이 말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나중에 기대한 것이 어그러져 암울한 속세로 남아서는 안된다.

전국의 경제 성장을 도표를 보면 우리 전북의 경우는 늘 뒷자리

에 처져있다. 그래프가 지난 십수년 동안 전국 평균 아래 쪽에서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도내 젊은이의 감소 현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시작된 유행어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헬조선에 빚든 헬전북이라는 신조어가 자기 조롱처럼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된 것이다. 지금의 난감한 세태와 관련해 그 주된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지방정부인 전북도 또한 빛을 진 기본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여기 다시 강조하겠거니와 저번의 거창한 발표를 전북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 마련의 책임을 공기업과 민간 기업도 나누는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이다. 그리고 열려되는 것이 있는 데 일자리 만들기가 숫자 채우기 같은 것으로 변질돼선 곤란하다. 그것은 올바른 해결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다. 젊은이들은 보수도 관할고 고용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일자리 13만 개 창출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날마다 뛰어야 한다.

거주 인구는 적고 공무원이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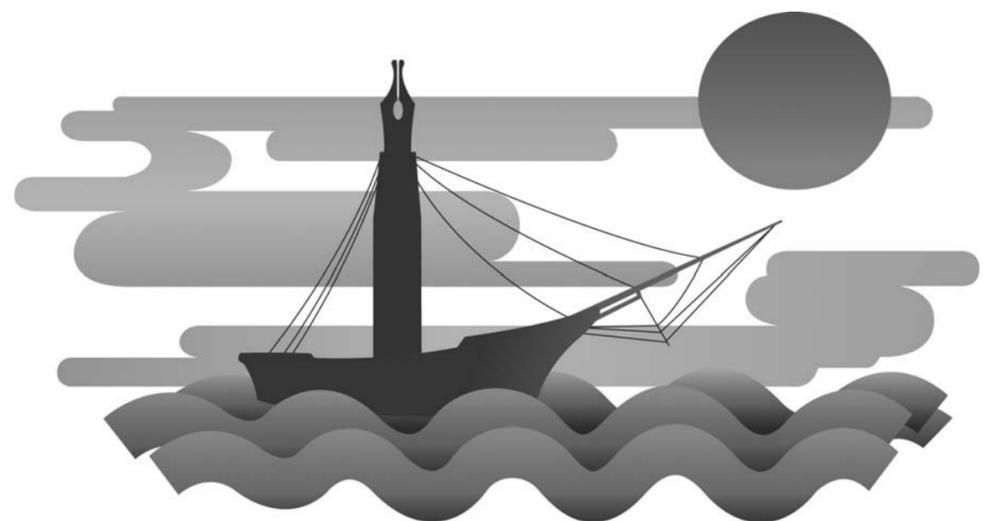
전북의 인구가 하릴없이 줄고 있는 중에 공무원의 수가 다른 광역자치체보다 많은 게 이변에 밝혀졌다. 공무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때, 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이 밝혀졌으니 일없이 국록만 행기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속으로 뜨끔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내 전체 시군을 평균 잡아 공무원 한 사람 당 담당해야 할 주민이 107 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인구 비례로 따져보자면 전북보다 공무원의 수가 많은 지역이 있기는 하다. 강원도가 그렇고, 전남이 그렇고, 경북이 그렇다. 그래도 그쪽 지역은 전북의 경우처럼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도내 거주 인구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옛날부터 최근 들어서까지 신랑들이 모범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일하기는 고사하고 못된 짓을 저질러 구설수에 오르거나 영어의 몸이 되어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전

북의 동부권이 문제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몇몇 단체장들이 지난 날 빈축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북이 낙후 지역으로 뒤쳐져 있다면 동부권은 더욱 뒤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 당 진안군의 44명 꼴이 눈에 띄고, 장수군의 45명 꼴이 눈에 밝힌다. 임실군의 48명 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거주 인구는 적는데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은 그 대상이 분명하다. 주민을 상대로 청구에서 주민의 상대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행져주기 위해서 실 틀이 없다. 그러므로 지적의 대상은 뒷자리에 앉아서 여유를 갖고 일하는 고위 공무원들이다. 그들 중에는 별로 하는 일 없이 거드름을 피우는 이가 있을 터이다.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해 단 체장 주변의 공무원들 말이다. 거주 인구는 적는데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다들 열심히 일 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